



2015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



지난 4월 9일 롯데호텔에서 제2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최호진 동아제약 상무, 배의찬 삼성 부장, 이한구 LG 부장, 임희석 대림산업 팀장 등이 참석해 지난 호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홍보위원회



6월 3일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제1차 홍보위원회가 있었다. 연합뉴스 이창섭

편집국장과 김현준 경제에디터, 김성용 산업부장, 추승호 소비자경제부장을 초청해 연합뉴스의 편집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편집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YTN 초청 회원간담회



6월 4일 조선포에서 YTN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준희 사장을 비롯한

YTN 간부진과 회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YTN의 보도·편성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는 오는 6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광고주대회 개최 계획 및 광고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J E&M] 스토리온 없애고, 'O tN' 출범

CJ E&M은 30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콘텐츠를 다뤘던 채널 '스토리온'을 없애고 'O tN'을 오는 8월 선보인다고 밝혔다. 'O tN'은 자아실현과 여가, 건강,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정보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강화한 콘텐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VOD시청현황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개월간 VOD 시청자료 88만 7,0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상파방송 VOD가 전체 시청시간의 75.5%를 차지했고, 이어 종편 VOD가 15.4%, CJ E&M이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고정형 TV VOD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비방송물보다 TV프로그램이 약 2.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프로그램별 VOD 시청현황은 '무한도전'(MBC, 3.75억분)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런닝맨'(SBS, 2.97억분), '왔다! 장보리'(MBC, 2.75억분),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2.09억분), '비정상회담'(JTBC, 2.06억분)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PTV가입자수 발표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IPTV가입자 수는 총 1천 83만 7천 90명으로, 전년의 861만 3천 578명보다 25.8% 증가했다. IPTV가입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 159만 2천 788명, 2009년 237만 3천 911명, 2010년 365만 9천574명, 2011년 493만 5천 803명, 2012년 654만 7천42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시점 업체별로는 KT 584만 9천52명, SK브로드밴드 281만 9천283명, LG유플러스 216만 8천755명이다.

[동서식품] 창덕궁서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동서식품은 지난 5월 28일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창덕궁을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4월 동서식품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된 첫 번째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으로, 규장각 주변에 위치한 고건물의 창틀과 바닥 먼지를 닦아내고, 덕혜옹주가 살았던 수강재 앞마당의 잡초를 제거하며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KT] 'KT 토요 실내악' 관람객 5만명 돌파

목동에 위치한 KT지사 내 체임버홀에서 2009년부터 지속해온